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이주여성 친정마을서 봉사활동

한국에 시집간 딸·의료진 방문에 동네 들썩

땀흘려 시골 마을 방문 양시엠리씨 2년만에 친정해 광주신세계백 항공로 지원

2년만의 귀향길이었다. 한국으로 시집온 지 2년만에 처음으로 캄보디아 친정집을 찾은 양시엠리(26)씨의 마음은 무거웠다.

어머니가 지난해 자궁암 판정을 받고 투병중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친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2년만에 얼굴을 마주한 어머니의 주름은 더 깊고 더 많아졌다. 큰 딸을 떠나면 이국 땅에 시집 보내고 마음 졸이던 어머니였기에, 큰 병을 얻은 것도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양시엠리씨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지난 18일 오전 캄보디아 칸달주(州) 목각푸을 행정구 땀흘려 마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차량으로 2시간여 떨어진 한적한 시골마을 중 한 곳이다. 40여 가구가 사는 조용한 마을에 2년 전 한국으로 시집 간 양시엠리씨가 20여 명의 한국 의료진과 봉사단을 방문하면서 동네가 들썩었다.

2년 만에 딸의 얼굴을 처음 보는 양시엠리씨의 어머니 킴(46)씨는 딸을 부둥켜안고 한참 동안 떨어지지 못했다. 딸의 체취와 온기가 온 몸에 전해질 때까지 꺼안고 또 안았다. 그렇게 회포를 풀 모녀는 동네 곳곳을 돌며 친인척들에게 인사하고, 한국 생활



지난 18일 한국에 시집온 지 2년 만에 캄보디아 칸달주 땀흘려 마을에서 양시엠리씨(오른쪽 두번째)가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야기를 늘어 놓았다. 친척들과 이웃들도 2년 만에 고향을 찾은 그녀를 앞다뒀 반겼다.

양시엠리씨는 지난 2014년 3월 한국인 김윤식(49)씨와 결혼해 광주에 정착했다. 그러곤 어느새 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뼈뺀 살림살이 때문에 여태껏 친정 방문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2년 만에 그녀에게 기회가 왔다. 광주의 다문화가정 지원단체인 (사)희망나무가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원 2주년을 맞아 이주여성 친정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고향 방문의 꿈을 이뤘다. 광주신

세계백화점이 그녀의 고향 방문에 필요한 항공료 등으로 300만원을 지원했다.

양시엠리씨와 동행한 의료봉사단은 이날 이 마을에서 의료 봉사활동과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아이안과 서정성 원장을 비롯한 조선대 병원 류마티스 내과 김윤성 교수, 청연한방병원 이경영 한의사 등 각 병원 의료진들이 진료를 도맡았고,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돋보기를 나눠주기도 했다. 친소년 봉사팀은 동네 아이들 20여명과 함께 그림 그리기, 종이접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양시엠리씨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 모든 광주 분들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행복하다”면서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방문해 주셔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한다. 1년에 한번씩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머니 킴씨는 “큰 딸을 한국에 시집 보내고, 마음도 몸도 아팠는데, 이제 딸 얼굴을 보니 살 것 같다”면서 “딸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하루빨리 손주도 뵈으면 한다”고 미소를 지었다.

／캄보디아 칸달주 글·사진=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농민 최대 소득작목 ‘오이’

도 농기원, 2015년 농가 소득 양봉·파프리카·딸기 뒤이어 전국 농가소득 3721만원

전남 농민들에게 지난해 가장 높은 소득을 안긴 작물은 오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51작목 741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전남 주요 농산물 소득을 조사한 결과 시설재배 품목에서는 오이가 10a(1000㎡)당 1607만 1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파프리카(1431만6000원), 딸기(1144만5000원), 시설호박(1143만20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노지재배 품목에서는 양봉이 1526만 3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블루베리(599만 2000원), 구기자(458만5000원) 등의 순이었다. 2014년 대비 소득 증가 품목은 조생양파, 가을감자, 대파, 양배추, 수박, 참깨 등 28개 품목으로, 생산량 감소, 평년작황 수지 회복 등이 그 원인이었다.

소득 감소 품목은 쌀보리, 봄배추, 가을무, 단감, 매실 등 23개 품목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통계청이 직접 작성하는 쌀, 마늘, 양파, 고추 등은 제외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소득분석 결과를 농가의 경영진단 자료와 경영마인드 제고 지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보조금 증가와 농업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농가경제조사’를 추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가소득은 평균 3721만원으로 전년 대비 6.5%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 이전소득(농업보조금) 등을 전부 합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직불금 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하며 전체 농가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농가소득 증가분 중 이전소득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에 가까운 48%로 가장 높았다.

영세 고령농을 포함해 농가에 지원되는 기초노령연금 등 기타 공적보조금이 전년 대비 16.4% 증가함에 따라 전체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

수년래 고령농을 면치 못하던 농업소득이 늘어난 것도 농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9.3% 늘어난 1126만원이었다.

정부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목표로 잇따라 시행한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 자율적 수급조절 활용 등 유통구조개선, ICT스마트팜 추진 등의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큰 규모의 전업농가의 소득이 꾸준히 오르고, 유가 하락 등으로 경영비가 절감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가 소득이 늘면서 도농 간 소득 격차도 다소 완화됐다. 지난해 기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에 대한 농가소득 비율은 64.4%였다. 해마다 격차가 심화돼 비율이 2012년 57.6%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61.5%로 다시 회복한 이후 2년 연속 완화됐다고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2025년부터 ‘다문화 군대’ 연평균 8518명 입대할 듯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들의 군 입대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9년 후부터 우리 국군이 ‘다문화 군대’로 변모할 전망이다. 군 당국은 다문화 군대에 대비해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안정적인 복무적응을 위한 교육용 교재 연구 제작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최근 다문화가정 출신 청년들의 입대 추세를 분석한 결과, 2025년부터 2031년 사이에 연평균 8518명의 다문화가정 출신 청년들이 입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20일 밝혔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다문화 자녀는 2006년 2만5000여명에서 2015년 20만8000여명으로 8배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이 다문화 군대로 변모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연합뉴스

견고 싶은 문화전당...둘레길·야간경관 조성

조선대~중앙대교 5km 정원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둘레길 정원과 야간경관이 조성돼 문화전당권의 볼거리가 더 풍족해졌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전당을 축으로 조선대~푸른길공원~양림동~사직공원~중앙대교에 이르는 5km 구간에 둘레길 가로정원이 조성됐다.

둘레길에는 금목서, 황매화, 화살나무 등 25가지 1만2000 그루와 금낭화, 구절초 등 74가지 초화류 3만2000 본을 심었다. 구간별로 푸른길공원에는 마을정원, ‘언약의 벤치정원’, 쉼터정원 등 테마를 부여했다.

양림동 선교사택 진입 골목에는 벽돌을 사용한 예스러운 화단과 인물표지 거리정원을, 사직공원 전망대 입구에는 솟대 정

원을 조성했다.

시민 스스로 풀을 뽑고 물도 주면서 관리해가면 내년에는 더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금남로와 광주천 교량의 야간경관 시설도 이날 점등으로 첫선을 보인다. 시는 문화전당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금남로 1~3가, 5·18 민주광장, 광주교·금교·중앙대교 등 사직공원과 광주공원 사이의 광주천 교량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금남로에는 ‘인간과 문화교류’를 콘셉트로 시간에 따라 색이 변하는 LED 조명을 설치해 인근 꽃밭과 야간경관이 어우러진 도심 풍경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천 교량 조명은 2006~2010년 설치 후 시설이 낡아 미관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대불산단 현장실사

고용부 30일 지원 규모 결정

전남도, 업체 지원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민관합동조사단이 20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 영암 대불산단장지를 현장실사했다.

이날 현장 실사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분야별 전문가 10여 명과 대불산단 조선업 관련 기업 관계자 및 근로자 대표, 지역 전문가, 전남도를 포함한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실사단은 이날 오전 대불산단 조선업 상황 등 의견을 수렴하고, 오후에는 노사 관계, 지역 일자리, 직업훈련 등 세부 전문 분야로 나눠 기업 대표, 근로자, 일자리 기관, 유관기관 등과 조선업 고용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사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 대상과 수준 등을 최종 검토해 오는 30일 지역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불산단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될 경우 ▲고용 유지 지원 강화 ▲조선업 일자리희망센터 등 인프라 확충 ▲세계 안정 지원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조선업종 고용에 대한 종합적 지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과 함께 별도로 ‘전남 조선산업 위기대책 지원단(단장 정무부지사)’ 중심으로 실직 근로자 재교육·재배치 등 고용 지원 시책과 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람찾음

성명: 박영욱(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동 제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갈때 검은보라색 상의 잠바와 검은초록색바지를 입고 발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음.

위 인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5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뀐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인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천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환 문화사업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대지

투자 가지 좋습니다

- ▶ 전남 여주시 서교동 668-7,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 일반 상업지역/6차선 도로 접/현, 주차장
-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 매매 - 협의
-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 주인직매 H.010-8829-6876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서구 양동 월산사거리 지하층~5층 숙박시설 (원룸가능) 대지 175평 건물 425평 ▶ 감정가 11억 최저가 4억9천만원
- 북구 동림동 동림지구 맞은편 큰도리번 3층근린주택 대지 207평 건물 385평 ▶ 최저 거래가 10억원
- 광양시 광양읍 주공후문 코너 건물 109평 토지 155평 음식점 및 사무실추천 ▶ 감정가 7억2천 최저가 4억원
- 북구 신안동 자동차거리 6층 숙박시설 사거리 코너 ▶ 감정가 10억원 최저가 5억6천만원 (감정가에56%)
- [급매] 하남3지구 상업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넓음. 투자수익 프랜차이즈 추천 ▶ 거래가 18억원

병원.사옥.상가.대지.창고부지 매매

- 나주시 다시면 창고 건물103평 토지281평 차량진입가능 창고상대양호 ▶ 감정가 1억2백만원 최저가 6천6백만원
- 북구 용봉동 3층원룸 9가구 전대생활관 인근 건물69평토지47평 ▶ 감정가 2억6천 최저가 1억8천2백만원
- 담양읍 삼리리 전원주택마을입구 도로접 인야. 위치좋은 토지2730평 전원주택지 개발추천 ▶ 최저가 4억6천만원
- 함평군 나산면 답312평 마을입구 도로접 건축가능 주변환경양호 ▶ 최저거래가 1천5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